

시론

“손뼉을 마주쳐야 소리가 나지 않겠소”



김영집
광주테크노파크 원장

중국에 한비라는 인물이 있었다. 뛰어난 법치사상이었으나 한나라 왕은 그를 인정하지 않았다. 훗날 진시황제가 된 진나라 왕 영정은 한비의 책을 읽고 감동해 한비를 강제로 초빙했다. 어느 날 진왕은 한비에게 물었다. “왕으로서 어떻게 권력을 행사하고 부하들을 다스릴 수 있었습니까?” 그러자 한비는 대답했다. “군주가 성공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권력을 통제하는 것이다. 덕과 재능이 있어도 권력이 없다면 통제할 수 없고, 한 손으로 박수를 치면 아무리 손이 빠르고 힘이 있어도 소리가 나지 아니하니(孤掌難鳴) 힘이 없으면 그 명령에 응할 자가 없습니다.” 이 말을 듣고 진왕은 여불위를 근절하고 권력을 장악해 신하들과 손뼉을 맞치서 천하를 통일했다. 고장난명이라는 중국 고사의 유래에 관한 출전이다. 한 손뼉으로 소리가 나지 않으니 서로 협력해야 한다는 것을 말할 때 흔히 쓰는 말이다. 이 고사성이어 떠올랐던 것은

최근 우리 주변에서 한 손뼉만 치는 일이 아주 많아서다. 22대 국회 원구성이 시작부터 파행하더니 여·야간의 대치정국이 계속이다. 갈수록 어려워지는 경제와 민생문제가 산적해 있는데 여·야가 함께 치는 손뼉쳐 해결하는 소리는 들리지 않으니 국민의 수심과 원성은 깊어만 가고, 국가경쟁력은 선진에서 중진으로 하향하며 3류화 되어 가고 있다. 지난 7월4일 전북 정읍에서 호남권 메가시티 경제동맹 선언식이 있었다. 7년 만에 호남 광역단체장 협력회의가 열렸더니 참으로 오랜만의 경사였다. 그간 전북은 광주·전남으로부터 분리를 추구하며 전북특별자치도가 됐고, 광주·전남은 민선 8기 들어 반도체특화단지 공동추진 등 상생협력을 도모했으나 동상이몽도 존재했다. 최근 대구·경북 행정통합, 대전·세종·충청의 통합, 부울경 광역경제권 재추진 등이 가시화되자, 호남권 자치단체장들의 자각제가 되었을 것이다. 형식보다 실질을 도모하는 호남권 세 광역단체 경제협력의 힘찬 손뼉소리가 울려 퍼졌으면 좋겠다. 광주와 전남·전북 3개의 호남권 테크노파크도 현재 호남경제동맹을 뒷받침하고 산업경제부분의 협력을 구체화 시키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고 이번 달 말경 회의를 열어 호남 산업협력 내용을 합의 추진할 예정이다. 지난 7월9일에 광주시와 전남대, 전남대병원, 광주상공회의소, 광주테크노파크는 전남

대 글로벌대학 30선정을 위한 지식학병연합약을 맺고 협력을 다짐했다. 그간 호남권 대표대학인 전남대는 전북대와 순천대가 작년에 글로벌대학에 선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비지정단계에 머무르고 있다. 광주의 대학들이 강도 높은 대학혁신안을 내세우지 못한 것도 있지만, 그간 교육도시로서 여러 대학이 육성돼 왔던 광주의 현실을 교육부가 너무 형식적으로 통합하려는 평가도 문제인 것 같다. 어쨌든 이번에는 기어코 광주에서도 글로벌 대학이 선정돼야 하고 그래야 다른 대학들도 내년엔 후속 선정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어쩌면 광주 글로벌대학 추진이 대학 학과로 지역사회 따로 해 고장난명이었는지 모른다. 선정이 얼마 남지 않아 지역사회 전체가 힘을 모아줘야 할 때다. 광주·무안간 민군통합공항 이전 문제, 광주시와 시민사회의 갈등 등을 비롯해 우리 주변에서 고장난명인 일이 너무 많다. 서로 비난하고 책임을 떠넘기는 습관. 그러나 서로 치열하게 혁신하고 서로 협력해버리는 노력은 힘들지만 미래를 위한 일이다. 아무리 쉬운 일도 혼자서는 힘들고 아무리 힘든 일도 함께 하면 쉬워진다. 손뼉이 맞고 의기를 투합하는 것이 만사를 잘 해결하는 지혜다. 명분과 말로만 협력이 성사되는 것이 아니며 힘을 기초로 고장난명을 극복하라는 한비자의 말을 다시 새겨볼만 하다.

社說

광주시의회 자리 다툼은 민주당 1당 독점의 폐해

사실상 더불어민주당으로 구성된 광주시의회가 후반기 의장단 구성을 둘러싼 자리다툼으로 눈총을 맞고 있다. 앞서 자체 경선을 통해 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 후보를 각각 결정했지만 본회의 투표에서 의원들의 무효와 기권 이 속출하는 등 파행을 노출하고 있다. 광주시당은 ‘경선 결과를 준수하라’고 경고장을 보냈다. 1당 독점의 목불인견 행태가 도를 넘어서는 지경에 이르렀다. 광주시당은 “당론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며 당헌·당규에 따른 후속 조치를 거론하고 나섰다. 이는 명진 교육문화위원장 후보가 1·2차 모두 전체 23표 중 과반(12표)을 얻지 못하며 낙마한 사례를 겨냥한 것으로, 3차 투표를 예정하고 있어서다. 낙선자에게 3번의 기회다. 아울러 안평환 행정자치위원장 후보, 최지현 환경복지위원장 후보, 박필순 산업건설위원장 후보도 겨우 과반을 넘겼다. 시의회 개원 최초의 여성 의장에 오른 신수정 후보의 경우도 찬성 16표를 받았으나 무효 4표, 기권이 3표였다. 시의회는 민주당이 21명을 차지하고, 국민의

힘과 무소속 각 1명이다. 절대 다수를 점하는 민주당의 책임 정치에 대한 기대가 높지만 회의적인 시각이 우세하다. 의장과 상임위원장 개인으로도 리더십에 부담을 떠안았다. 시의회는 전반기 활동 역시 전문성 등 자질 부족과 함께 집행부 견제에 미흡했다는 평가가 많았던 만큼 실망감은 물론 분노가 커지고 있다. 의회의 자율, 독립성을 침해한 월권으로 광주시당의 개입도 골불건이다. 민주적 선거 절차를 무시하고 비밀투표의 원칙을 무너뜨렸다는 지적이 거세다. 2년 뒤 선거를 앞두고 굳이 잡기, 쫓겨나기 밖에 보이지 않는다. ‘깃발만 꽂으면 당선’이라는 광주의 지역구도가 유지되면서 여러 폐해를 낳고 있다. 유권자들은 안중에도 없고 계파 갈등이나 감투 쓰기에 연연하는 것이다. 기초의회의 사정도 비슷한 양상이다. 자신의 기득권을 위해 애쓰는 모습에 주민들은 단단히 뺄이나 있다. 광주시의회의 분열이 심각하다. 상당한 후유증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그 피해는 또 시민들에게 돌아갈 게 불보듯 뻔하다.

지역경제 파급 건설·부동산업 위기 예삿일 아나

고금리가 지속되면서 부동산 경기도 크게 위축돼 있다. 지역 중소 건설사들은 어려운 상황을 호소한다. 연세 줄폐업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한국은행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양부남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말 전체 금융권(은행+비은행)의 건설업과 부동산업 대출 잔액은 각각 116조2천억원(56조5천억원+60조7천억원), 500조6천억원(309조1천억원+191조4천억원)에 이른다. 역대 최대 규모다. 이 통계는 금융기관 업무보고서에 기재된 실제 대출·연체 등을 집계한 결과다. 비은행권은 저축은행·상호금융(새마을금고 제외)·보험회사·여신전문금융회사가 망라됐다. 부실 대출 지표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다. 특히 비은행권의 건설·부동산업 연체율(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 기준)은 올해 1분기 기준 각 7.4%, 5.8%로 역시 2015년 이후 최고다. 연체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고정이자여신(NPL) 비율의 경우 저축은행에서 건설업이 19.7%, 부동산업은 14.2%에 달했다. 저축은행 사태 직후 2013년

30%를 웃돌았는데 당시 수준에 빠르게 근접하고 있다. 올해 초 시공순위 16위 대영건설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 개시로 한 고비를 넘겼지만 여전히 불씨가 살아있다. 금융권 대출이 눈덩이로 불어나고 부실화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통화 긴축과 경기 부진의 여파로 이자차차 감당 못하는 기업들이 속출하고 있다. 이리다간 다 죽을 판이다. 지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지 않은 만큼 빨간불이 들어왔다. 양 의원은 높은 연체율 등이 금융과 지역 위기로 이어지는 고리를 차단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모니터링과 예방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자금 조달의 한계, 자재값과 인건비 상승에 따른 공사비 문제, 미분양 물량 증가 등 복합적 난제가 맞물렸다. SO C 예산 조기 집행 및 합리적 비용 책정, 규제 완화를 통한 금융부담 감경 등 정부가 할 수 있는 역할을 다해야 한다. 건설·부동산의 리스크가 금융권 전체로 파급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다.

기고

2천만 관광도시를 꿈꾸며



서채수
목포경찰서 집회시위자문위원장

영산강 안개 속에 기적이 울고, 삼학도 등대 아래 갈매기 우는, 그리운 내 고향 목포는 향구다. 목포가 낳은 당대 최고의 가왕(歌王) 고(故)이남영 가수가 80여년 전에 발표했던 국민 애창곡 ‘목포는 향구다’의 가사 일부이다. 목포는 1897년 개항 이후 일제 수탈기지로 급성장해 일제 강점기인 1940년대에는 인천·부산·원산과 함께 조선 4대항으로 변신했다. 그후 상업도시로 변모해 한때는 남한의 6대 도시로 강성했으나 일본, 중국 등과의 교역이 끊기고 무역항으로는 사양길로 접어들면서 목포항 개발의 손길도 멈추고 개항 130여년, 목포시로 승격하지 75년의 유구한 세월이 흘렀건만 화려했던 지난날 영화(榮華)는 역사의 뒤안길에 묻힌 채 소외받고 정체된 도시로 변해버렸다. 지리적으로 조수간만의 차가 크고 항구 내항의 수심이 얕으며 영산강 중상류로부터 유입되는 다량의 퇴적물들은 대형 항만으로의 성장에 병행한 한계가 있었으나 DJ를 배출한 또 다른 이유 때문에 수 십년간 정권의 희생

양으로 전략돼 모든 개발로부터 소외되고 발전의 걸림돌이 돼 그 어떤 비전도 기대하기에는 힘들었던 정치적 배경도 부인할 수 없다. 그동안 목포시민과 히로애락을 함께하며 목포의 대표기업으로 성장했던 보해, 조선내화, 행남자기 등 중견 기업체들도 타 지역으로 옮겨가고 이제는 제대로 된 변변한 공장 하나 없이 소비도시로 변해 버렸다. 힘들고 짊든 삶 속에서 그래도 목포는 유독 정이 많은 도시이다. 목포는 문화와 예술이 살아 숨 쉬는 예향의 도시이다. 박화성, 김우진, 차범석, 이남영, 남농 허건 등 수많은 인물들을 배출한 문화와 예술의 고장이다. 목포는 먹고 싶은 것, 보고 싶은 곳이 많은 맛과 멋의 도시이다. 한동안 맛과 멋, 매력을 깃벌속에 묻혀둔 채 잠자고 있던 목포가 이제 긴 겨울잠에서 깨어나 요란스런 동풍을 일으키고 있다. 개통 5년째를 맞는 국내 최장거리 해상케이블카는 한국관광 100선으로 선정돼 그 위용을 뽐내며 전국 각지에 있는 수많은 관광객들을 불러 모으고 있다. 목포 평화관광과 북항 노을공원에서는 대한민국 대표 야간 관광 콘텐츠인 해상 W쇼 불꽃축제가 4월과 5월 두차례에 걸쳐 구름처럼 물러든 관광객으로 발 디딜 틈 없이 성황리에 개최됐고, 앞으로 7월과 9월 두차례 공연을 준비하고 있다. 새롭게 단장한 대만동 백사장과 스카이라이프는 목포 관광의 낭만과 멋을 한층 업그레이드

이드 시켜 핫플레이스로 각광받고 있다. 목표는 지난 해 800만 관광객이 다녀 갔으며 이제 2천만 관광도시를 꿈꾸며 힘찬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생산기반이 취약한 목포로서는 관광산업의 의존도가 매우 높은 지역이다. 2천만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관광인프라 구축이 절실하다. 복합리조트와 가족레저형 여가활용 관광지 등 글로벌 관광명소를 연계 조성하고 대형 호텔, 쇼핑몰, 인피니티수영장과 공연장, 전시장, 컨벤션센터 등의 시설이 절실하다. 짜릿한 이벤트, 다양한 먹거리, 볼거리, 즐길거리를 제공하여 누구나 다시 찾고 싶은 도시로 변화 시켜야 한다. 특히 목포에는 숙박시설이 극히 부족하다. 요즘 주말에는 밀려드는 관광객들로 방 구하기가 엄청 어렵다고 아우성이다. 이와 더불어 깨끗한 거리조성, 바가지요금 근절, 친절한 손님맞이 등 성숙한 시민의식 전환과 유관기관의 발 빠른 관광시책 발굴과 대응책 강구 등 민관 통합형 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관광인프라조성 관련 간담회, 토론회와 피드백팅 설치도 매우 절실하다. 가까운 진도, 신안, 해남 등에 산재해있는 수많은 관광자원과 관광벨트를 구축, 숙박 레저형 여행객을 유치해 관광산업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 이러한 모든 노력들이 한데 모여져 실현됐을 때 2천만 관광도시로의 도약과 목표의 새로운 부흥을 기약할 수 있을 것이다.

기고

6·25참전용사들 위로하고 존경심 갖자



김지원
대한민국6·25참전용사회
전남 담양군지회장

74년 전 우리나라가 공산화될 위기에 처했을 때 우리 젊은이들 모두는 너나 할 것 없이 나라를 지키겠다는 일념으로 목숨을 아끼지 않고 적군을 무찔러 오늘의 자유 대한민국을 일구었다는 사실을 온 국민이 잘 아시리라 믿는다. 참전 당시 20대의 청춘이었고 혈기 왕성했던 용사들은 6·25전쟁 74주년을 맞는 지금 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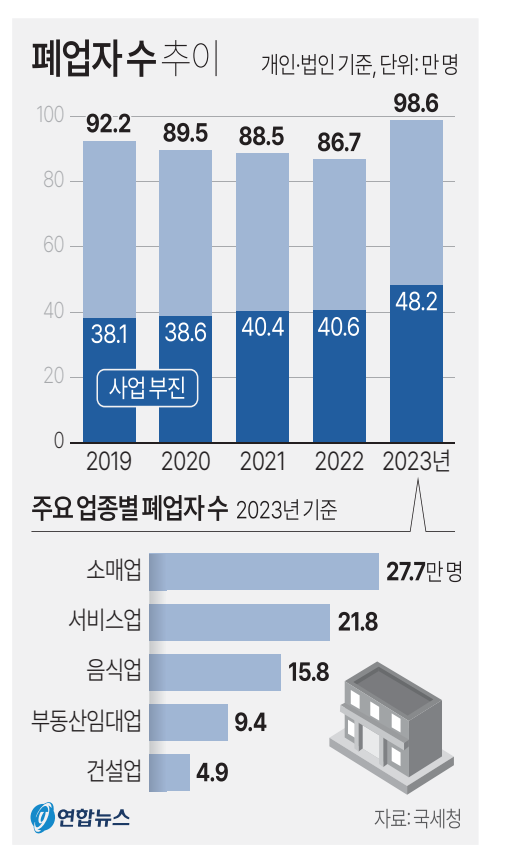
균 94세의 노병이 돼 하나 둘씩 말없이 사라지고 있는 참전 용사들, 총탄이 빗발치는 전장에서 적군의 총탄에 쓰러지고 부상을 당하면서도 나라를 지키고 구하고자 몸을 내던진 참전 용사들을 생각할 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여기에 어울리는 합당한 예우를 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현 사회는 비참한 6·25전쟁을 잊혀 가는 것이 매우 안타까운 현실이다. 포탄에 맞고 총에 맞고 피를 흘리며 쓰러진 전우의 시체를 밟고 넘어 넘어 앞으로 앞으로 나아가 간 용사들 머릿속에는 무슨 생각들이 스쳐 갔을까? 오직 살아서 한 치의 국토와 나라를 지켜야 한다는 일념은 물론이거니와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이 없는 평화롭고, 부강한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이 변함없이 간절했을 것이다. 6·25참전용사회는 이렇게 목숨을 걸고 조국을 지켜낸 용사들이 만나는 대한민국 최고의 호국안보단체이며, 호국영웅의 단체이다. 이 영웅들은 나라를 구했다는 자부심을 갖고 각자의 영역에서 나라를 부흥시키는 데 최선을 다해 오늘을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밑거름이 됐다. 퇴장하는 노병으로서 오늘의 주역들이 74년 전과 같은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물샴없는 안보태세를 강화해서 선진 대한민국의 평화통일을 실현해주길 간절히 호소한다.

그래픽 뉴스

작년 폐업자 100만 육박 역대 최대... ‘사업부진’ 19% ↑

지난해 폐업 신고를 한 사업자가 역대 최대 폭으로 증가하면서 연간 100만명에 육박했다. 15일 국세청 국세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폐업 신고 사업자(개인·법인)는 98만6천487명으로 집계됐다. 전년(86만7천292명)보다 11만9천195명 증가한 것으로 2006년 통계 집계 이후 가장 많다. 폐업자 수는 2020-2022년 80만명대를 유지하다가 지난해 100만명 턱밑까지 수치 상승했다. 폐업 사유별로 보면 ‘사업 부진’이 48만2천183명으로 가장 많았다. 금융위기 당시인 2007년(48만8천792명) 이후 역대 두 번째로 많은 것이다. 전년(40만6천225명)과 비교하면 7만5천968명(18.7%) 늘어난 것으로 역대 최대 폭 증가다. 사업 부진 외에 폐업 사유로는 기타(45만1천203명), 양도·양수(4만369건), 법인전환(4천685건) 등이 뒤를 이었다. 업종별로 보면 소매업 폐업이 27만7천535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비스업(21만7천821명), 음식업(15만8천279명) 등 내수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업종의 타격이 컸다. 부동산대업(9만4천330명), 건설업(4만8천608명) 등 지난해 경기가 좋지 않았던 부동산 관련 폐업자도 많았다. /연합뉴스



광주매일신문 1991년 11월 1일 창간 http://www.kjdaily.com
회장 馬亨列 사장·발행·편집인 李庚秀 논설실장 金鍾民 편집국장 朴恩成
(우)61636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로338번길 16 대표전화 (062)650-2000 구독신청·배달안내 (062)650-2022
편집부 650-2090 지역특집부 650-2060 광고문의 650-2099
정치부 650-2030 사진실 650-2080 마케팅본부 650-2070
경제부 650-2050 논실실 650-2006 경영지원부 650-2011
사회부 650-2040 TV본부 650-2009 사업본부 650-2007
문체부 650-2065 서울지사(02) 786-9488 업무국 650-2020
\*본지는 신문윤리규정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2002년 4월 30일 등록, 등록번호 광주지10(가)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